

'광주 현대사' 그랜드호텔 헐린다

DJ·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만남의 장소' 1번지

철거 준비 공사 ... 내년 2월 복합쇼핑센터 오픈

한때 광주 호텔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랜드관광호텔이 25년 간의 역사를 뒤로한 채 사라진다.

11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불로동 121번지의 그랜드호텔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 공사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다.

1주일 동안의 준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중장비를 이용, 본격적인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 호텔 건물 철거 공사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6년 문을 연 그랜드호텔은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에 60여개의 객실과 부대시설로 운영돼 왔다.

특히 이 호텔은 한때 광주 구 도심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직원 수만 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또 앙상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할 경우 속소로 광주·전남의 '정치'가 이뤄진 현장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각종 주요 기관의 행사 개최 장소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이 호텔은 지난 2005년 전남도 청사가 무안으로 이전된 이후, 인근 상권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폐업신고를 거쳐 지난 2009년 8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한편, 그랜드호텔이 철거된 자리에는 연세대학교 2000m²에 지상 3~4층 규모의 복합 쇼핑센터가 내년 2월께 들어설 예정이다. 호텔 철거와 복합 쇼핑센터 신축은(주) 미투종합건설이 맡았다.



지난 1986년 문을 연 광주시 동구 불로동 그랜드관광호텔 건물 철거 공사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다. 11일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방진막과 추락방지 그물이 설치된 그랜드호텔. /남경주기자 mjna@kwangju.co.kr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이 완료되면 복합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업계 측은 내다보고 있다.

건물 신축을 주진중인 미투종합건설 관계자는 "복합 쇼핑센터가

들어서 광주 구 도심의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상권 회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모든 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내년 전국 2300곳도

내년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2300여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을 전달하는 교사가 배치돼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중·고교에서 활동할 진로진학 상담교사 1407명을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지난 3월 고원자격 검정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교과교사다.

앞서 교과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로진학 상담교사 1392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799명의 상담교사가 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모든 고교에는 1명 이상 배치되며

400여개 중학교에도 배치가 시작된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600여시간의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 상담을 자격증을 취득한 뒤 내년 3월부터 활동한다. 국공립 990명, 사립 417명이다.

교과부는 당초 15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시도 교육청 가운데 예산부족이나 정책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전북(0명)과 경북(국공립 44명만 선발) 교육청이 선발 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5300여개의 모든 종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특성화高 대입 특별전형 1.5%만 허용

2015년까지 ... 전문대도 '대학교' 명칭 쓸 수 있다

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된다.

교과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편, 전문대의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마련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3%로, 2015학년도에 1.5%로 줄어든다. 당초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2015학년도에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학부모의 반대로 비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명칭을 '대학'으로 한정했지만 내달부터 정관만 변경하면 '대학' 또는 '대학교' 가운데 선호하는 명칭을 교령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에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해 학사 학위를 막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각각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심사해 11월 중으로 해당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학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들 06시 35분 해침 18시 02분 일들 17시 49분 일침 06시 34분

큰 일교차 '감기조심'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다.

광주	호림	13/24°C
목포	호림	13/23°C
여수	흐림	17/23°C
나주	흐림	10/25°C
완도	호림	13/24°C
구례	흐림	9/26°C
강진	흐림	11/24°C
해남	흐림	9/24°C
장흥	흐림	9/25°C
순천	흐림	13/26°C
영광	흐림	11/23°C
전주	흐림	11/24°C
군산	구름많음	11/22°C
남원	구름많음	6/23°C
흑산도	흐림	16/20°C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출증지수
낮	비다	풍향
서해 남부	일반하다	파고
남해 서부	일반하다	보통

낮	비다	풍향	파고	낮	비다	풍향	파고	낮	비다	낮
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낮	짜	13(목)	14(금)
씨	14/21	14/20	12/19	11/19	11/20	10/21	씨	씨	14/21	14/20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대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안철수·잡스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국인은 안철수 서울대 응용과학 기술대학원장, 외국인은 애플 공동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라

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대학신문과 인터넷포털 캠퍼스라이프는 지난달 1~21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2187명을 대상으로 '2011년 대학생의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총장(16.3%)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4.4%) 순이었다.

가장 존경하는 외국인으로는 응답자의 20.0%가 스티브 잡스라고 답했고 위런 버핏(11.1%)과 벌 게이츠(10.5%)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젠 톤 -

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구요?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통증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지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증(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한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울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 성 고질적 콧병을 치료한다.

기본적인 치료는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증진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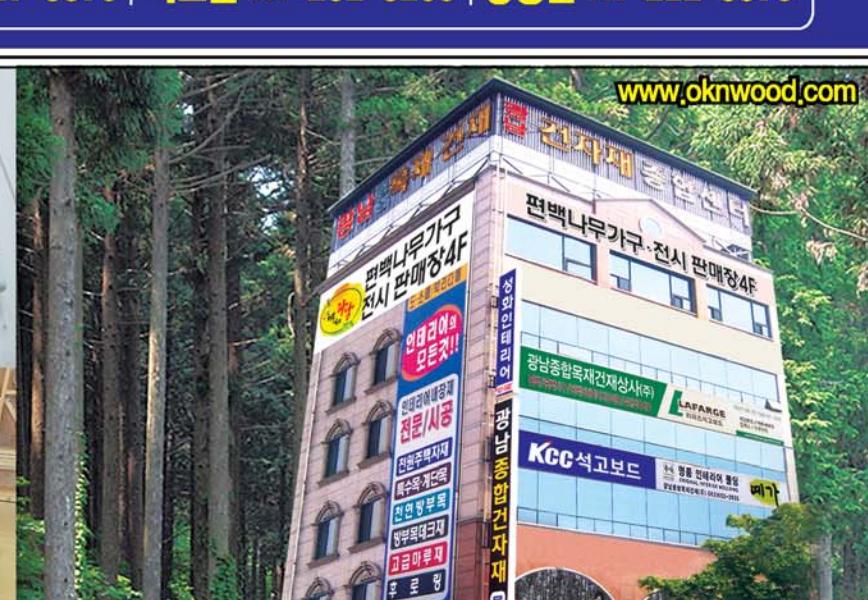
축농증, 알레르기 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침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뜯어 먹는다고 하여 일명 '노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멎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침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 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증-4738호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화토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플)
- 친환경 흙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킬라 내장 마감재, 목모보드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